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 농지은행 디지털창구 운영

박인규 기자 입력 2025. 7. 4. 12:06

태블릿과 전자편 활용해 서명 한번으로 농지계약 끝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시사(지사장 이한기)가 농지은행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상주시사는 농지은행 고객 편의와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디지털 창구를 본격적 운영 하고 있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편을 활용해 서명 한번으로 농지계약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계약 시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한기 지사장은 "고객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및 사업관리의 디지털 전환은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약자인 고령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